

종합·해설



등진 여야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9일 안산 상록수 역 인근에서 미디어업 강행 처리 부당성을 알리는 거리 홍보전을 하고 있다. (왼쪽)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29일 오후 민생탐방차 충북 음성군청을 방문해 인사말을 하며 밝게 웃고 있다.



민주당 전남지역 모 의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3차 입법전쟁 등으로 피로가 많이 쌓였지만 의원직 사퇴까지 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여름휴가는 꿈 꿀 수도 없다”며 “8월 한 달은 상당히 힘든 시기가 되겠지만 이를 극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한 지도부 충청은 왜 갔지? 선진당과 정책연대 급했나

한나라당 지도부가 29일 민생탐방 프로그램의 두 번째 방문지인 충북 음성군의 혁신도시 추진현장에 출몰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희태 대표를 비롯해 정몽준·허태열·박순자·송광호·박재순 최고위원, 김성조 정책위의장, 신상진 제5정추위위원장, 이혜훈·허헌·김성태·이은재 의원 등이 나섰다. 또 정부측에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과 강병규 행정안전부 2차관, 노태래 기획재정부 차관보가 참여했다.

제2차관,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등이 참석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충청권 끌어안기를 위한 한나라당의 의지로 표출로 보고 있다. 여권 내에서 충청권을 기반으로 한 자유선진당과 정책연대를 포함한 ‘충청권 연대론’이 확산하고 있어 이날 지도부의 행보는 심상치 않게 해석됐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날 충청권 민생탐방을 시작으로 충청 민심을 읽는 것은 물론 지역 현안을 면밀히 파악, 9월 정기국회에서 예산·정책 등에 이를 적극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통합적인 간담회를 갖는 대신 현안별로 간담회를 세분화했다.

이제 따라 민주당 의원들은 지역 의정 보고회를 통해 미디어 악법에 대한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면서 틈틈이 쉬는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남지역 모 의원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된 3차 입법전쟁 등으로 피로가 많이 쌓였지만 의원직 사퇴까지 한 현재 상황을 고려하면 여름휴가는 꿈 꿀 수도 없다”며 “8월 한 달은 상당히 힘든 시기가 되겠지만 이를 극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번 충북 방문에서는 지난 27일 여수 방문 때보다 당 지도부의 참석 규모와 비중이 커졌다. 당시에는 허태열·박재순 최고위원과 김성조 정책위의장, 심재철 국회 예결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정부 측 이윤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최정현 국토해양부

관뿐 아니라 이석춘 경제예산심의관, 권오봉 재정정책국장, 정기준 국토해양 예산과장 등을 차례로 만나 여수엑스포 관련 SOC 예산확보액을 1조2천억원대로 편성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장관은 “SOC 예산의 축소는 4대 강 정비사업과는 별개의 사안이며, 여수엑스포 예산은 개최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편성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윤준현 장

민주·한나라 대조적인 여름나기 “악법 폐지” 땡벌거리로 “9월에 보자” 내공 쌓기

정치권의 여름방학인 하한 정국 맞아 여야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그동안 쌓였던 피로를 풀며 9월 임시국회를 대비하는 모습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사실상의 휴가를 반납하고 미디어 악법 폐지를 위한 장외 집회에 나서고 있다. 29일 한나라당 의원들은 9월 임시국회까지 한 달에 이르는 정치적 휴가 기한 동안 지친 심신을 쉬면서 내실을 다지는 계획이다. 우선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아직 휴가 계획을 잡지 못했다.

현재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민생탐방이라는 맞불 작전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박 대표는 적절한 시기에 조용히 휴식을 취할 예정이다. 원내서령탑인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도 ‘땡벌 스테이’를 통해 고단했던 입법대치의 후유증을 털어낼 계획이다. 박근혜 전 대표도 특별한 휴가계획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해외시찰과 같은 특별한 일정은 잡지 않고 자택에서 책을 읽고, 하반기 정국 구상도 가다듬을 것으로 전해졌다. 정몽준 최고위원은 자문교수와들과 만나 북핵 문제 및 외교에 대한 전

락을 수립하는 동시에 전국 강연과 민생현장 탐방을 통해 차기 주자로서 위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반해 정세균 대표와 이강재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여름휴가를 반납하고 ‘미디어법 무효화 장외투쟁’에 올인한다. 정 대표는 당초 8월 중 남북문제와 관련해 미국 방문을 구상했지만 국회 상황 때문에 계획을 중단하고 미디어 법 폐기 100일 대장정을 선봉에서 이끈다. 그는 28일 신촌에서 열린 거리 홍보전에서 “휴가철이고 모든 국민이 쉴 때는 쉬어야 하

‘여수박람회 예산 따내자’ 발품 판 민주 김성곤의원 정부 관련 부처 방문 협조 당부



민주당 김성곤 의원(여수갑·사진)이 29일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 기획재정부를 방문,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예산을 꼼꼼히 챙겼다. 김 의원은 이날 윤준현 장

관뿐 아니라 이석춘 경제예산심의관, 권오봉 재정정책국장, 정기준 국토해양 예산과장 등을 차례로 만나 여수엑스포 관련 SOC 예산확보액을 1조2천억원대로 편성할

김 의원은 이날 윤준현 장

한나라 ‘미디어법 역풍’ 맞나

자세 여론조사, 지지율 급락... 민주당은 올라 한나라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지지율이 폭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31.1%로 조사됐다. 여의도연구소는 지난 6일 당무회의

지난 6일 조사에서는 한나라당 지지율은 35.5%, 민주당 25.7%였다. 미디어법 통과 뒤, 한나라당 지지율은 9.2%포인트 하락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0.4%포인트 오른 것이다. 한편, 여론조사 전문가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29일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결과, ‘미디어법 통과 과정에서 재투표와 대리투표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주장에 ‘공감’이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24.1%인 반면, ‘공감이 간다’고 응답한 비율은 6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미디어법 강행처리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결국 찬성으로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실망스럽다’는 의견이 60.3%, ‘특정정당 소속 의원으로서 당론을 따른 것으로 이해가 간다’는 응답이 33.7%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 대통령 “경기회복 아직 낙관 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며 “경제가 회복기에 들어왔지만 우려는 아직도 안심하거나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만은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이럴 때일수록 더 긴장하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나 자신이 그러한 자세로 나라 일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지적재산 관련 국제수지 측면에서 40억 달러가 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국가장래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지적재산권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3박4일간의 여름휴

가를 떠난다. 이 대통령은 이번 휴가 기간 부인 김윤옥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과 국내외 한 휴양지에 머물면서 조용히 휴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온 뒤 일주일에서 열흘 내로 개각과 청와대 개편을 단행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A+ Eplus Real Estate Broker) featuring services like '수완지구 상업용지' and '전용 가능한 급매물'.

Large advertisement for '공장급매' (Factory for Sale) located in '광주광역시 하남산단 9번도로' with contact number '010-3617-8810'.

A grid of small advertisements for various businesses including '성흔결혼정보', '청호담철학원', '배고파청국장', '강촌', '전북해물나라', '무등육선', '무진렌트카', '울타리생선급비전문점', '농부의아들', '한백년결혼상담', '대동철학작명원', '별미식당', '아름다운미술학원', '애플타워방임대', '전북구이전문점', '광주우리웃', '다빈치미술학원', and '바이오펜스키퍼'.